

베르나도트 : 프랑스에서의 삶 (1)

엘

소개글

베르나도트 장군은 후에 스웨덴의 칼 14세 요한이 됩니다.
그의 전기인 Bernadotte : the first phase 1763-1799를 번역 요약한 것입니다.

이편에서는 나폴레옹과 만나기 직전까지의 베르나도트의 삶이 나옵니다.

주의사항

1. 지명과 사람이름을 잘못 읽은것있습니다.
2. 오타있습니다.
3. 문맥이 맞지 않는 문장도 간혹보입니다.

목차

1	베르나도트 : 프랑스에서의 삶 : 첫번째 1763-1780	4
2	베르나도트 : 프랑스에서의 삶 ...두번째 1780-1792	9
3	베르나도트 : 프랑스에서의 삶 ...세번째 1792-1794	13
4	베르나도트 : 프랑스에서의 삶...네번째 1794-1796	22

안녕하세요 엘입니다.

ㅎㅎㅎ 사실 칼 14세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데 부인인 데지레에 대해서 조금 안다죠
어쨌든 덕분에 칼 14세 요한도 조금은 알게 되었는데.... 글들이 대부분 성공이후의 삶에 중점을 두고 있다죠.
그러다가 우연히 1800년 전까지의 칼 14세 요한에 대한 책을 찾았습니다.

저자 말에 의하면 베르나도트는 자신의 조국에 총을 겨눴기에 프랑스는 그를 용서하지도, 그리고 용서할 마음도 없어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자의 표현대로 "Who can blame her?" 일듯합니다.
솔직히 제가 당시 프랑스 사람이라면 저도 베르나도트를 욕할듯하거든요..아하하...

베르나도트 : 프랑스에서의 삶 : 첫번째 1763-1780

1763년 1월 마지막주 베아른 (프랑스 남서부지방)의 중심도시인 포에서 카니발이 끝나가고 있었다. 이 화려한 축제에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몇명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 법률가의 부인이었던 마담 앙리 베르나도트였다. 그녀의 출산일은 원래 몇주후였기에 출산은 급작스러웠던 것이고, 1763년 1월 26일 남자아이를 조산했다.

베아른 지방은 자주 가스코뉴 지방의 일부로 여겨졌으며, 가스코뉴는 100년전쟁 당시 영국의 중요한 요충지였다. 따라서 이후 베르나도트에 대해서 "가스코뉴 사람"이라고 부른것은 그가 자신의 조국에 등돌리고 총을 겨누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것이기도 했다.

베아른 지방은 앙리4세때 프랑스에 편입되었다. 그는 전형적인 "베아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뛰어난 군인이었을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로잡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을 떠나 프랑스의 국왕이 되었다. 그리고 같은 베아른 출신이었던 베르나도트 역시 선임자와 같은 길을 걸었다.



베르나도트의 생가

베르나도트의 아버지는 포에 있는 국왕의 법정에서 공식적인 직함(Procureur au senechal)을 가지던 법률가였다. 그의 어머니는 St. Jean이라는 성을 쓰는 가문 출신으로 이 가문은 오래도록 포 인근에서 살았으며, 주변의 몇몇 귀족가문들과도 연관되는 가문이었다. 베르나도트의 형제는 모두 다섯명이었고, 그는 막내로 태어났다. 베르나도트가 태어났을때 형제중 형인 장과 누나인 마리만이 살아있었다. 베르나도트가 태어났을때 그는 형과 같은 이름이었으나 중간에 바티스트만을 더해져서 이름을 넣었다. 하지만 두 아들의 성명축일은 달라서 둘의 성인은 달랐는데 형의 성인은 사도 요한이었고, 동생의 성인은 세례자 요한이었다. 그렇기에 동생의 이름에 바티스트가 들어간것이었다. 베르나도트 집안은 지역에서 어느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생존해있는 동안 편안한 삶을 누릴수 있었다. 하지만 베르나도트는 허약한 소년이었고 자신의 삶이 길거나 유용지가 의문인 감수성 예민한 소년이기도 했다. 포에서는 베르나도트에 대한 이야기가 몇가지 전해져오는데 그중 하나가 어린시절부터 싸움을 즐겼고 우편마차의 말들을 타는것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자주 우체부들을 도와주고 소득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가 다른 이들(주로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이들)과 자주 어울리기도 했지만,(가족들이)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 삶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문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도 했다.

베르나도트는 아버지와 형과 마찬가지로 법률가가 되기 위해 14살에 법률학교 학생이자 도제가 되었다. 아버지와 형과 달리 그는 법률학교에서 만족하지 못했다. 그의 문제 행동은 언제나 부모의 걱정이 되었는데, 특히나 베르나도트의 어머니는 다른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큰아들에게 언제나 이 문제를 이야기했고 결국 그는 가족내에서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아이가 되었다. 몇몇 이들은 그가 후에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나이든 사람에 대해서 그다지 공손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어린시절 가족들의 질타로 인해 불행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가족에 적응하지 못한것은 그다지 좋지 못했던 건강과 너무나 예민한 감수성탓도 있었을듯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난형, 못난 동생...쯤 되겠쥬. 조산으로 태어났다니 몸도 약하고.... 아버지랑 형처럼 법률가가 되라니까...관심도 없고 씹질이나 하고 우체부 일이나 하고 그랬으니 속터지셨겠쥬...ㅎㅎㅎ)

이런 가족내 불화는 후에 그가 군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을 떠나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무훈을 세웠고, 이런 경향은 결혼한 후에도 집에 있지 않고 늘 전장으로 다녔다. 이때문에 부인인 데지레는 남편이 떠나있을때면 남편때문에 울고, 남편이 돌아왔을때도 언제나 다시 떠나려 하는 남편때문에 울었다고 한다.

하지만 베르나도트는 가족에게 이해 받지 못한 마음에 상처를 극복했다. 그는 군에 입대한 후 어머니와 형에게 언제나 애정어린 편지를 썼으며,특히나 어머니는 늘 존경의 대상이었다.

베르나도트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시작한것은 1780년 3월 31일 아버지의 죽음 이후였다. 그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 도제로 일한지 2년이 되던 해였다. 그는 이제 스스로 독립해야할 시기라고 여겼으며 1780년 9월 그는 집을 나와 프랑스 군에 자원 입대했다. 베르나도트가 입대한 이유는 군대에 대한 열정이라기 보다는 어머니와 형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었다. 이렇게 베르나도트는 군인으로써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프랑스 혁명중에서 장군이 되었고 후에 프랑스의 원수가 되었고, 스웨덴의국왕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루이15세때 태어났다. 그리고 그가 11살때 루이 16세가 국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입대하던 날은 네케르가 실패해서 파면되기 직전이었으며, 이후 8년간의 혼란을 겪기 전이었다. 베르나도트는 루이 16세의 군인으로 출발했다.



BERNADOTTE, SOLDIER OF KING LOUIS XVI.

To face page 40.

루이16세때 베르나도트

자료출처

Bernadotte : The First Phase (1763-1799)(T.D.Barton,1914)

책출처

www.archive.org

아하하... 편지글은 어렵습니다.

베르나도트 : 프랑스에서의 삶 ...두번째 1780-1792

베르나도트가 막 입대했을때 그의 동료중 한명은 베르나도트의 외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검은 머리와 눈썹, 움푹패인 갈색눈에 전체적으로 둥구스름한 얼굴과 길게 뻗은코, 작고 얇은 입술과 작고 둥근 턱 그리고 좁다란 이마에는 돌로 인해 생긴 두개의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마 가운데 있었고 하나는 눈썹위에 있었다

베르나도트가 처음으로 간곳은 바로 코르시카였다. 베르나도트가 있던 시기 유명한 나폴레옹과 그의 형 조제프는 공부를 위해 섬을 떠나고 없었다. 하지만 후에 다른가족들은 코르시카에 남아있었다.

코르시카에서 2년간 주둔한후, 베르나도트는 잠시 병가로 집에 왔다. 그는 이때 수많은 장군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을것이다. 그중에서 자신과 비슷했던 카티나-그 역시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군이 된 사람이었다.-나 화가의 아들이었던 Fabert의 전기를 읽으면서 꿈을 품었다.

베르나도트는 장교가 되길 바랬지만 당시 프랑스는 구 신분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 결과 4대가 귀족이었던 사람만이 장교가 될수 있었다. 이것은 법률가의 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1784년 베르나도트가 속한 연대는 도핀 지방의 중심지인 그르노블에 주둔하게 된다. 이곳에 4년간 머물면서 베르나도트는 겨우 하사관이 될수 있었다. 베르나도트가 하사관으로 삶을 살고 있는 동안 그르노블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La Journee de Tuiles" 발생한다. (..제가 쓴 앞쪽 포스트 프랑스 대혁명...1. La Journee de Tuiles (그르노블, 1788.6.7) <http://blog.daum.net/elara1020/8464260> 참조해 주세요.)

몇 이야기에서는 베르나도트가 이때 총을 쏘라고 명령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사실 그는 분대를 지휘할 권한도, 총을 쏘라고 명령할 권한도 없었다.



기와의 날

이 사건이후 연대는 1789년 마르세유로 옮겨가게 된다. 이때에 대해서는 매우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진다. 베르나도트는 숙박해도 좋다는 명령서를 가지고 마르세유의 부유한 상인인 프랑수아 클라리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군인들이 오는것을 싫어했던 프랑수아 클라리는 차라리 장교를 보내달라면서 베르나도트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후에 베르나도트는 프랑수아 클라리의 막내딸인 데지레 클라리와 결혼했다. (이 이야기는 데지레 클라리의 전기에도 언급되는 사건인데 가끔 코르시카에서 왔던 1784년 -그르노블로 가는 도중 연대는 마르세유에 잠시 머뭇-때라고도 이야기 된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제공한 사람은 데지레 클라리 본인으로 나이가 든후 스웨덴에서 자주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마르세유에서 그는 부사관으로 오를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그의 지위는 장교와 사병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이었고, 그는 상관들에게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혁명이 나라 전체에 소용돌이 칠때, 마르세유 역시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마르세유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국민군대에 자원입대했다. 이것은 기존의 정규군과 마찰을 야기시키는데 이것은 베르나도트의 연대장이 연류되는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베르나도트의 연대장은 군민군대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마르세유 시민들에게 끌려갔고,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했다. 이때 베르나도트는 자원해서 시청으로 가서 연대장을 옹호했고, 사람들에게 연대장을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게 하던가 아니면 자신과 동료들의 시체를 넘어서 그에게 상해를 입히라"고 연설을 했다. 그의 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으며, 연대장은 그날 풀려날수 있었다. 이후 의회 조사까지 받게 되자, 그는 다시 한번 부사관들 전체가 서명한 서신을 파리로 보내서 연대장을 살릴수 있었다. (마르세유시청에서 베르나도트의 연설을 들었던 사람중 한명은 베르나도트가 틀림없이 성공할것이며, 만약 운이 좋다면 베르나도트의 미래는 찬란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샤를 바르바루

프랑스의 혁명시절 정치가

그는 마르세유 출신으로 베르나도트의 연설을 듣고 틀림없이 성공할것이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몇주뒤인 1790년 4월 베르나도트의 연대는 마르세유를 떠났다. (위의 사건을 통해서 마르세유 사람들은 국왕의 군대를 도사에서 내보내려했었고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후 한동안 프랑스 서쪽지방에서 복무했다. 이때 프랑스는 공화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마쳐가고 있었다. 국왕은 국외로 도망가는것을 선택하지만 붙잡혔고, 그의 운명은 단두대를 향하는것이 된다. 이때 군법 역시 변했는데, 다른 장교들은 전쟁장관이 직접 임명했지만, 소위와 중위는 연대 장교들의 투표로 선출되었다.

베르나도트는 1791년까지도 장교가 되지 못했다. 1790년 베르나도트의 연대 사병들은 그에게 연대장이 되라고 요구했지만, 베르나도트는 동료들의 지지는 고맙지만, 군법과 의무를 따라야한다고 동료들을 설득했다.

이후 변화한 군법에 따라 베르나도트는 소위가 되기 위한 투표에 참가하지만, 투표에서 떨어졌다. 그는 연대 최고참 부사관이었기에 당연히 장교가 될줄 알았었다. 하지만 투표에서 지자 그는 크게 낙담했고 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삶은 끝났다"라고 할정도였다. 하지만 곧 다른 투표가 있었고, 이때는 만장일치로 소위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 연대에서 소위로 살지는 않았다. 전쟁 장관이 그를 다른 연대의 중위로 임관했기 때문이었다.

베르나도트는 거의 11년간 사병으로 복무했으며, 사병으로 거칠수 있는 거의 모든 계급을 다 거쳐서 부사관이 된후 장교가 되었다. 많은 나폴레옹의 원수들중 베르나도트보다 오랜기간 사병으로 복무했던 사람은 단지 두사람 밖에 없었다. 그리고 베르나도트 역시 사병으로 시작한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했으며, 특히나 스웨덴의 국왕이 된 후에는 자주 사병이었을때를 회상하는것을 좋아했다.

1792년 4월 베르나도트는 제 36연대 (양주 연대)의 중위가 되었고, 이것은 그의 화려한 경력의 출발점이 된다.

자료출처

1편과 동일

그림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베르나도트가 장군되기까지의 과정을 읽는데 눈빠지는줄 알았습니다만....

장군되고나서는 말이 더 많은듯합니다. (기록이 더 많은모양입니다..)

진짜 프랑스에 있는 베르나도트 자료란 자료는 다 수집하신듯합니다.

ㅎㅎㅎ 전 이 책 쓴 분이 마음에 드네요..ㅎㅎㅎ

베르나도트 : 프랑스에서의 삶 ...세번째 1792-1794

베르나도트가 36연대의 장교로 부임하게 된것은 1792년 프랑스의 대 오스트리아 선전포고와 무관하지 않다. 이후 나폴레옹전쟁으로 이어지면서 20년 이상 유럽을 전쟁으로 물고가게 되는 프랑스 혁명전쟁의 시작인것이었다.

베르나도트 같은 군인들이 화려한 경력을 쌓으면서 출세할 기회를 제공한 이 전쟁의 배경은 대외적인것 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내 상황도 한 몫했다. 프랑스는 혁명의 에너지를 국외로 돌리고 싶어했고, 이에 프랑스의 천연경계를 주장한다. 바다,라인강,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으로 구성되는 천연경계가 말로 진정한 프랑스의 국경이며, 이 국경안에 있는 외국 세력을 몰아내는것은 프랑스의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고, 이후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천박한"영토전쟁이 아닌 프랑스의 주권을 지키는 "명예로운"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한편 유럽의 다른 군주국들은 프랑스의 혁명 사상이 자신의 나라에 전파되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는것을 두려워했다. 이에 혁명 사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전쟁을 할 각오가 되어있었다.

이 두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프랑스의 혁명전쟁은 오래도록 시작되는 국제 전쟁이 된다.

전쟁 상황은 프랑스에 유리하게 돌아간것은 아니었다. 파리와 가까운 북부전선은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로 알려지게 되는 지금의 벨기에 지방이었다. 수도의 안전을 위해 이곳을 가장 먼저 공격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하지만 프로이센의 침공을 막아낸 발미전투이후 프랑스는 다시 대외전쟁에 대한 힘을 얻게 된다.

베르나도트는 이 전쟁에서 하급 장교로 라인방면의 전투에 배속된다. 장교가 된 베르나도트의 첫 사령관은 라인군 총 사령관이었던 퀴스틴 장군이었다. 퀴스틴 장군은 귀족출신으로 미국 독립전쟁에도 참가했었다. 그는 라인군의 총 사령관이 되었고, 천연경계가 되는 라인지방을 점령하려하고 있었다.

퀴스틴의 첫번째 전투는 처음에는 성공적이었다.그는 슈파이어,홀름스,마인츠를 장악했고, 라인강의 경계까지 나갔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기습공격에 실패했다. 하지만 의회는 그의 승리에 환호했으며, 그를 "게르마니쿠스"라고 부를정도였다. 이때 베르나도트는 하급장교로 전투에 참가했고, 전투에 임하면서 늘 꿈꾸던 지휘권을 가지는 장교가 되는 열망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베르나도트는 빙엔의 수비대대 참모장교로 발령받았고 1793년 독일의 반격 전까지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1793년 초 국왕인 루이16세가 길로틴에서 처형당했다. 하지만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전선에서 하급장교로 생활하던 베르나도트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제한하던 신분제를 풀어준 혁명에 고마워했으며, 혁명의 이념인 자유주의에 대해 새롭게 알고 이를 신봉하게 된다. 그는 이런 기회를 준 공화국 자체를 지지했지만, 파리의 정치상황에는 무관심을 뿐 아니라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다.

1793년 봄 독일은 프랑스에 반격을 시도했고, 프랑스는 다시 라인지방에서 후퇴해야했다. 이전에 점령했던 도시들중 두개는 다시 독일에 빼

앗겼으며, 마인츠는 포위당한채 농성중이었다. 프랑스군은 이 마인츠를 구원하는것이 가장 시급했다. 퀴스틴 장군은 마인츠를 구원하기 위해 5월 17일 기습공격을 감행하지만 실패했다. 이 전투에서 베르나도트는 처음으로 군대를 지휘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형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때 상황을 적고 있다.

전장에서 다른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하는 동안, 저는 이 굴욕적 광경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군율을 바로잡으려는 어떤 장교도 찾아볼수 없었기에, 저는 이 무질서한 대대 한복판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화를 내고, 애원하고, 지휘를 했습니다. 소란스러움과 혼란이 너무나 컸기에 병사들은 제 말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머스킷 총성을 들었고, 전 이중 일부라도 방향을 바꾸게 하려고 제 칼끝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제 최전선이 되어버린 대대 뒷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말은 지쳐버렸지만, 전 제 위치를 유지했고,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군들, 여기가 재 집결지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곳까지 도망쳤다. 하지만 더이상 후퇴는 없다. 나는 여러분이 자기 위치를 지킬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여러분들의 방패는 여러분의 총검과 용기이다. 다른 이들에게 전투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면서 자유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자. 하지만 우리는, 가능하다면, 우리위치에서 총을 쏘며 죽음을 택하자! "공화국만세(Vive la Republique), 프랑스 만세(vive la Nation)" 다시 모이자, 전우여, 그 용병들(hired slaves, 아무래도 자기네는 공화국이라서 내가 주인인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고, 독일 병사들은 국왕에 고용된 병사라는 의미인듯해요.) 에 대항해서 앞으로 나가자. 정복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를 패배시키기는 힘들것이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제 소리를 들은 병사 몇몇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adjutant-major를 따라 적을 향해 돌진하자' 전 그들에게 전투명령을 내렸고,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뒤로 있던 다른 여섯개의 대대에도 영향을 쳤습니다. 저는 포병을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오게 했고, 포를 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적들은 감히 추격할 엄두를 못 냈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실패가 예상된 반격이었지만, 저희는 전장에서 버텼습니다. 적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저희도 그랬습니다. 18개의 그룹이 분할 없이 바이센부르크로 회군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제 용기와 성공에 축하해줬습니다. 병사들은 저에게 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은 여기서 끝입니다. 왜냐면 누구도 총사령관에게 제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하급장교의 행동은 종종 알려지지 않는 반면, 지휘관들의 실수는 큰공으로 무마됩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서 처럼, 전 공화국에대해서 여전히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화국은 제가 헌신하는 곳이니깐요.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니께 포옹해주십시오. 그의 말처럼 공식문서에는 베르나도트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었다. 베르나도트는 이에 낙담했지만, 그의 부대 사람들은 베르나도트의 능력을 잊지 않았고, 그를 대대를 지휘할수 있는 대위 계급으로 선출해주므로써 그의 행위에 보답했다.

이 전투의 실패로 퀴스틴 장군은 라인군에서 북부군으로 이동하게 된다. 당통이 그를 후원했기에 처음에는 무사했지만, 당통의 실각후 퀴스틴 역시 체포되어 길로틴형을 받았다. 퀴스틴에 대한 사형 언도는 벌어지는 장군들에 대한 부당한 처형 중 하나일 뿐이었다.



퀴스틴 장군

퀴스틴의 후임으로 온 사람은 바로 알렉상드르 드 보아르네 장군이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그는 유명한 조제핀 드 보아르네의 첫번째 남편이었다. 그 역시 귀족출신으로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군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전장에 뛰어드는 열정이 없었으며, 모든것을 한눈에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 마인츠를 구원하기 위한 그의 공격은 실패했고, 말을 잡아먹으면서까지 버티던 마인츠 수비대는 결국 항복할수 밖에 없었다. (이때 마인츠의 수비 사령관은 클레베르였다.) 알렉상드르 드 보아르네 역시 이 일을 용서받지 못했고, 후에 길로틴형을 받게 된다.



알렉상드르 드 보아르네 장군

나폴레옹의 첫번째 부인인 조제핀 드 보아르네의 첫번째 남편

외젠 드 보아르네와 오르탕스의 아버지

후에 베르나도트의 며느리가 되는 로이히텐베르크의 조제핀(요세피나 왕비)의 할아버지

보아르네 장군의 실패가 거의 확실해질 무렵, 베르나도트의 36연대는 북부군에 재배치된다. 이곳의 총사령관은 우샤르 장군이었다. 그는 평민 출신으로 장군이 된 입지적인 사람이었기에 수많은 이들이 그에게 열광했다. 이때 베르나도트는 연대 투표에 의해서 중령으로 선출되었다. 우샤르 장군은 뉝케르크를 원조하기 위해 군대를 이동했고, 9월 4일 이제르강에서 적과 만난다. 이후 며칠동안 전투가 계속되었고 프랑스는 승리를 거둔다. 이 전투가 바로 웅드스코트 전투였다. 베르나도트 역시 이 전투에 참여했다.

하지만 우샤르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동맹군이 세곳의 수비대를 전멸시켰기때문이었다. 우샤르는 이때문에 소환되었고,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길로틴 형을 당했다.(혁명재판소의 재판관 중 한명이 우샤르에게 비겁자라고 하자, 우샤르는 칼에 베인 흉터 세개가 있는 가슴을 보이면서 "보시오 이것이 내 대답이오"라고 했다고 한다.) 우샤르의 처형은 가장 말도 안되는 사건이었다.



우샤르 장군

이후 북부군은 주르당이 맡게 되었다. 그는 장군보다 현장 지휘관이 더 맞다고 생각했지만 총 사령관직을 거절한다면 반역으로 여겨질것이기 에 수락할수 밖에 없었다. 1793년 10월 주르당은 와티니 전투에서 승리했고, 자신의 승리에 대해서 무척이나 겸손한 행동을 취했기에 길로틴 형을 면할수 있었다.

하지만 수도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길로틴형을 피할수 없었다. 불안정한 북부 전선 상황은 수도 파리가 공격당할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사람들은 국가의 적을 처단한다는 공포정치의 생각에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 10월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당했으며 11월에는 수많은 지 룡드 당원과 귀족들이 처형당했다.

이런 끔찍한 프랑스 혁명의 범치는 후에 혁명을 통해서 출세한 수많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게 된다. 하지만 베르나도트와 같은 이들에게 공포정치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을 것이다. 파리에서의 정치 상황은 멀리 떨어진 전선에서 복무중인 군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것이 었고,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명예롭게 싸운것이지 권력을 위해 파리에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길로틴으로 향하는 마리 앙투아네트

1794년이 되자 베르나도트는 드디어 원하던 연대를 지휘할수 있는 계급이 된다. 혁명정부는 프랑스 군을 개편했으며, 이때 준 여단이라고 불리는 체제를 도입했다. 베르나도트는 이 새롭게 창설된 준여단들중 제 71 준여단의 대령으로 승진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삼브레 강을 장악하고 있던 아르덴 군과 합류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곳에서 베르나도트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두명의 장군을 만나게 된다. 바로 클레베르와 마르소였다.

클레베르는 이전 마인츠를 수비하던 수비대 사령관이였다. 그는 마인츠가 함락당한후, 방데 내전지역으로 배속받았었다. 그는 매워 뛰어난 군인으로 카리스마로 부하들을 사로 잡았고, 군의 영웅역할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후에 나폴레옹은 클레베르에 대해서 "군복을 입은 마르스신"이라고 부르며, 그가 전장에 있는것보다 더 좋은 징조는 없다.라고 했다. 그는 처음에 참모장교로 부임했지만 곧 지휘관이되었다. 마르소는 방데 내전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다. 그는 "오슈(역시 방데 내전에 이름을 날린 장군)와 함께 뛰어난 지휘관 명성이 높았고, 또 그는 명예롭고 관대한 사람으로 유명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마르소의 연애 이야기는 무척이나 유명한데 그는 두명의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둘다 왕당파였기에 공화국에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마르소는 그녀들과 헤어질수 밖에 없었다.==;;)

마르소와 클레베르는 방데 내전에 함께 싸웠지만, 둘은 기질과 나이차가 컸기에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둘은 서로의 장점을 알게되고 무척이나 친해졌다.

베르나도트는 이 두명의 뛰어난 장군들과 친해졌고, 후에 이것은 우정으로 바뀌었다. 특히 클레베르는 베르나도트를 무척이나 신뢰했는데 베르나도트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언제나 그를 선봉에 앞세웠다.



클레베르 장군
"군복을 입은 마르스"



마르소 장군

....무척이나 낭만적인분 인듯합니다.

이시기 베르나도트 역시 공포정치의 위험을 피해갈수는 없었다. 베르나도트는 공안위원회의 하부기관인 국민의 대표자가 군에 머무는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이때문에 베르나도트는 자신의 지위를 잃을뻔한다. 파리에서 체포 명령이 내려졌지만,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이였기에 일단 피할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전투에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병사들을 진정시키고, 혼란에 빠진 군대를 재정비해서 무사히 퇴각시켰다. 이때문에 그에 대한 체포 명령이 취소될수 있었다.

베르나도트가 장군이 될수 있었던것은 바로 프랑스 공화국에 영광을 가져다준 승리인 플뢰리스 전투였다. 여기서 베르나도트는 큰 활약을 했고, 베르나도트의 상관이었던 클레베르는 보고서에 베르나도트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장군"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쓰인 3일후 베르나도트는 장군이 된다.

국민 공회는 영광을 가져다준 플뢰리스 전투를 치룬 삼브레 근처의 아르덴과 북부군에게 "삼브레와 뫼즈 군"이라는 칭호를 준다. 이 부대의 칭호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었다.



플뢰리스 전투

가운데 말탄사람이 주르당 장군이고 뒤에 배경에 세명 몰려있는 장군들이 마르소,르페브르,클레베르라고 합니다.

베르나도트는 이제 "삼브레와 뫼즈 군"의 장군이 되었다.

자료출처

1편과 동인

그림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안녕하세요 엘입니다.

프랑스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전쟁에 대해서 요즘 무진장 궁금해서..결국..흑...ㅠ.ㅠ
더이상 공부 작파하는 일이 없어야하는데 말입니다...

베르나도트가 베르나도트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에서 사는 이야기는 왠지 여기에 넣어야할듯해요. 이민가기 전에는 프랑스 사람으로 프랑스 역사에 참여한거니까요...

(이민간 후에는 스웨덴의 칼 14세 요한이라는 스웨덴 사람으로 프랑스 역사에 조금 개입하지만, 스웨덴 역사에 참여하죠)

....이제 베르나도트 전기를 좀 덜 읽을려나..라고 생각했더니...나폴레옹이랑 만나는 대목이라 책에서 눈을 땔수 없는 엘...=-=;;

베르나도트 프랑스에서의 삶....네번째 1794-1796

삼브레와 뫼즈군의 장군이 된 베르나도트는 1794년 벨기에를 점령하는 삼브레와 뫼즈의 영광에 동참한다. 1794년 베르나도트는 여전히 클레베르의 선봉장으로 수많은 전선에서 맨 앞에 섰다.

삼브레와 뫼즈군에서 클레베르는 주로 군을 선도하는 역할이었고, 이런 클레베르의 부대중 베르나도트의 사단은 가장 앞에 서는 부대였다. 수많은 전투에서 베르나도트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며, 병사들의 앞에서 먼저 적진에 뛰어드는 사령관이었다.

예를 들면 프랑스가 대승을 거둔 알덴호벤전투에서 베르나도트의 부대는 클레베르의 선봉으로 가장 먼저 강을 건너 제방의 위치를 장악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때 로르강을 건너기에 만든 다리가 짧았다. 그러자 베르나도트는 "선봉은 제일 용감하다.다른이의 모범이 되자"라고 가장 먼저 강으로 뛰어들어서 강을 건넜다. 이에 그의 병사들은 장군의 뒤를 따랐다. 이런 용감한 행동으로 강을 장악했고, 이후 알덴호벤을 공격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베르나도트의 부대는 "알덴호벤"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특별한 군기를 수여받았다.

삼브레와 뫼즈군은 벨기에를 점령하고 피슈그뤼가 이끄는 모젤군의 네덜란드 점령을 도왔다. 그리고나서 이제 라인강으로 이동하게 된다. 주르당이 이끄는 삼브레와 뫼즈군은 1795년에서 1796년 사이 세번의 독일 침공을 벌린다. 하지만 사실상 1795년은 대부분 라인강둑에서 독일을 넘겨다 보고만 있었다.



주르당

1792년 중령이던가 대령이던가..-0-;;;

플뢰뤼스 전투후, 로베스피에르와 생 쥐스트등이 주도하던 공포정치가 붕괴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공포정치가 사람들에게 용인될수 있었던것은 수도 파리가 외적에 침략당할수있다는 불안감때문이었다. 이런 불안감은 사람들을 극도로 긴장하게 했고, 결국 "공화국의 적"에 대해 맹목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플뢰뤼스 전투이후 파리가 함락당할 염려는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공화국의 적"에 대해 이제 약간 느긋한 시선으로 바라볼수 있었다. 그리고 가혹하게 "공화국의 적"을 탄압한 공포정치가 잘못되었다는것을 깨닫기 시작한것이었다.

공포정치가 막을 내리고 총재정부가 들어서지만, 이것은 독일을 침공하려던 군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 비록 생쥐스트등의 인물들이 "무개념"으로 작전에 관여하고 장군들을 심하게 탄압하긴 했지만, 적어도 군대에 필요한 보급품은 제대로 공급해줬었다. 이것은 내각에 카르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테미도르 반동이후, 카르노는 그의 명성때문에 처형당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에서 물러나야했고 이후 군의 보급에 그만큼 신경쓰는 이는 없게 된다. 결국 정부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전공을 세우라고 주르당을 몰아세운다. 주르당은 라인강을 건너기 위한 물자를 스스로 마련했지만, 병사들의 보급문제는 여전했고 이때문에 병사들은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에 까지 달한다.

주르당은 장군들을 불러 작전회의를 소집했고, 이때 베르나도트는 이런 열악한 상황을 라인강을 건너 적과 맞서 싸우면서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결국 주르당은 1795년 가을 첫번째 독일 침공에 들어간다.

주르당이 수행한 세번의 독일 침공은 모두 같은 루트로 구성되어있었다. 우익인 클레베르 장군이 먼저 뒤셀도르프에서 라인강을 건너 적들을 몰아내면, 나머지 부대가 남하하다가 노이비트에서 라인강을 건너서 나사우를 향해 가서 란강을 점령하는것이였다. 그리고 마인츠등의 라인

강 주변 주요도시를 점령하면서 독일쪽으로 전진했다.

주르당의 첫번째 침공은 마인츠에 이를때까지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합동작전을 하기로 했던 피슈그뤼의 모젤군이 주르당이 마인츠에 접근한 뒤에도 오지 않았다. 이때문에 주르당은 고립되어서 퇴각할수 밖에 없었다.

이때 베르나도트는 퇴각하는 군의 후미를 사수했다. 베르나도트의 가장 뛰어난 능력을 여기서 발휘된다. 베르나도트는 퇴각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쫓아오는 적들을 막아내도록했다. 그는 뛰어난 선봉장이었던 동시에 퇴각하는 군을 엄호하는데 역시 탁월했다. 프랑스 장군 출신의 전쟁 저술가인 조미니는 이런 베르나도트에 대해 "전장에 있는것만으로도 적을 몰아낸다"라고 평할정도였다.

군이 라인강을 다시 건넌을때, 파리는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바로 총재정부였다. 이때 카르노가 다시 복귀했기에 군에는 어느정도 희망이 생기리라 여겼다. 하지만 혼란한 정치 상황은 군의 상황을 신경쓰지 않았고 이때문에 오스트리아군이 라인강을 건너 프랑스군을 공격할 때까지도 주르당은 정부의 공격명령을 기다리고만 있어야했다. 오스트리아 군이 공격을 시작하자, 정부는 주르당에게 할수있는한 모든것을 동원해서 적을 막으라는 명령을 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나 힘들었는데, 각각 다른 방면에서 적을 막고 있던 마르소와 베르나도트는 총사령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상황이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거나 "프랑스 장군이 택할수 있는 최선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정도였다. 하지만 마르소의 뛰어난 승리로 프랑스군은 다시 숨통이 튼것고, 본진의 고립을 우려하던 주르당은 오스트리아군의 휴전제의를 받아들인다.

주르당의 두번째 침공은 육개월간의 휴전이 끝난 1796년 5월에 재개된다.

같은 경로로 시작한 침입은 클레베르가 라인강을 건넌을때 막히게 된다. 라인강을 건넌 클레베르를 오스트리아 군이 기다리고있었고, 곧 전투로 이어진다. 이 알텐키르헨 전투는 프랑스군의 빛나는 승리중 하나가 되었다. 클레베르와 네르페브르,술이 이 전투의 주역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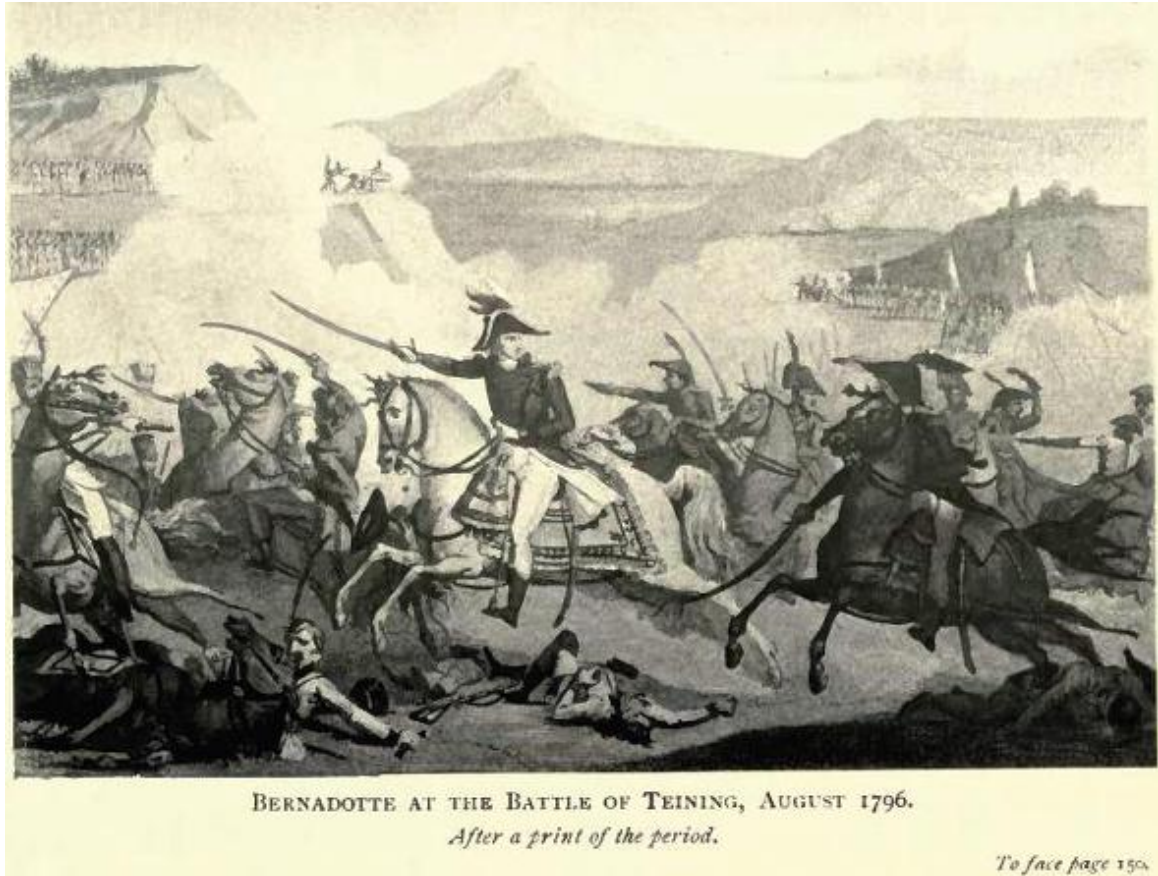
베르나도트는 다시 똑같이 노이비트에서 나머지 군대와 함께 라인강을 건넌고, 나사우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때 베르나도트는 헤센-다름슈타트지역을 방어했다. 이때 주르당의 부대는 잠시 지체했고, 결국 이것은 베를라전투의 패배로 이어진다. 결국 프랑스군은 다시 퇴각해야했다. 퇴각할때, 후미를 보호한 사람은 여전히 베르나도트였고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잠시간의 휴식후 1796년 6월 주르당은 다시 독일 침공을 한다. 이때 목적은 모로 장군이 지휘하는 라인과 모젤군을 방어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군이 집결하는것을 막는것이였다. 똑같은 경로로 다시 독일로 들어갔고, 베르나도트는 주르당이 노이비트에서 라인강을 건널때 선봉이 되었다. 이때 강을 건너다가 오스트리아 군에게 발각되자 베르나도트는 대담하게 오스트리아군의 수비대가 있는 곳으로 직전 상륙해서 공격하게 했다. 한밤중의 기습으로 오스트리아군은 간신히 퇴각할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란강을 따라 진격했으며, 헤센-다름슈타트로 갔다. 주르당의 부대는 드디어 프랑크푸르트를 함락시켰으며, 뉘렌베르크 대학이 있는 알텐도르프까지 진격했다.

이때 베르나도트의 군생활중 가장 뛰어난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다이닝전투가 시작된다. 주르당은 나헤강쪽으로 진격하면서, 베르나도트를 남쪽으로 보내면서 우익을 보호하고 모로장군을 만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들은 카를 대공[오스트리아측 총 사령관]은 우익의 후미인 베르나도트를 공격해서 모로와 주르당의 연결을 막으려했다. 이렇게 된다면 주르당은 고립된채 후퇴하는수 밖에 없었기때문이었다. 이에 카를대공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갔다. 베르나도트와 카를 대공이 만났을때 병력차는 세배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고 베르나도트는 카를대공의 선봉과 본진사이를 끊어 선봉을 고립시키기까지 했다.

그러나 중과부족이었던 베르나도트는 다이닝마을로 후퇴했고, 모로와 주르당 모두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둘다 구원병을 보낼수가 없었다. 게다가 베르나도트가 성급하게 후퇴한다면, 나헤강쪽으로 너무나 나가있던 주르당의 우익 전체가 공격당할 위험이 있었기에 주르당은 할수있는한 늦게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베르나도트는 하루동안 다이닝 마을에서 버텼지만, 더이상은 무리였고, 밤에 노이마르크트로 퇴각한다. 카를대공은 기병대 모두를 동원해서 베르나도트를 추격했고, 노이마르크트인근에서 다시 따라잡았다. 다시 하루동안 치열한 포격전이 있었고, 베르나도트는 노이마르크트로 향하는 길이 봉쇄된것을 알때까지 버텼다. 그는 길을 돌아가야했고, 계속되는 추격에 싸워가면서 본진과 합류하기 위해 이동했고, 간신히 본진과 합류했다. 베르나도트가 카를 대공과 맞닥들인것은 8월 20일이었고, 본진으로 돌아온것은 8월 27일이였다. 거의 일주일간 쉬지 않고 전투를 하면서 퇴각했다. 이때의 일로 프랑스는 베르나도트를 칭송했다. 그가 이렇게 버티지 않았다면 우익이 드러난 주르당의 군대는 괴멸했을지도 모를일이었기때문이었다. 오스트리아측에서는 베르나도트가 카를 대공의 진격을 막은 요소중 하나였을뿐이라고 평하지만, 그렇게 많이 병력차가 나는 군대를 지휘한 카를 대공이 더 많은 전공을 세워야했다는것은 인정했다.



다이닝 전투

간신히 본대에 합류한 베르나도트는 설수가 없었다. 오스트리아군이 계속 주르당의 군대를 뒤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쉬지도 못하고 다시 거의 일주일간 전투를 벌였고 주르당의 군대가 퇴각하는데 시간을 벌어주었다. 주르당은 9월 2일 뷔르츠부르크에서 결정적 패배를 한후 라인강 뒤로 후퇴해야만했다. 주르당이 뷔르츠부르크에서 적과 싸우려했을때, 장군들 대부분이 이에 대해서 반대했다. 특히 부사령관이었던 클레베르는 강하게 반대했고, 주르당의 참모장과 베르나도트,콜랑,샹피오네등도 이에 동의했다. 그리고 군대의 대부분이들이 이 전투를 반대했다. 하지만 주르당은 이를 강행했고, 클레베르와 베르나도트,콜랑은 병을 이유로 잠시 지휘권을 내려놓는다. 모두들 그들이 주르당에게 항명해서 그랬다고 여겼으며, 특히 클레베르와 콜랑에 대해서는 모두들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베르나도트는 14일간 매일 전투를 했고, 그는 다이닝 전투이후 이마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있었기에 그의 휴식은 당연한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베르나도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총사령관에게 복종했다면, 지쳤거나 어떤 큰부상을 입었을지라도 전투에 참가했으리라 생각했다. 아마도 베르나도트가 잠시 쉬것은 정당한 행동이었지만, 총사령관에 대한 불만도 다분히 있었을것이었다.

베르나도트가 복귀한후 그는 우익의 마르소를 지원했다.그리고 마르소와 베르나도트는 적을 막아서 프랑스군이 퇴각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둘은 함께 퇴각하는 군대의 후미를 보호했다. 이때 27살의 뛰어난 장군이었던 마르소는 매복한 병사의 총에 맞고 사망했다. 마르소의 죽음은 클레베르와 베르나도트가 후에 주르당을 더이상 총사령관으로 신임할수 없다고 주장하게 되는 이유중 하나였으리라 생각된다. 마르소가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일련의 전투들은 처음부터 주르당이 부대들을 잘못 운용했기 때문이었다. 클레베르는 방데내전에서부터 함께 싸운 마르소와 절친했다. 방데내전 당시 한 사람은 둘에 대해 "이들과 같은 우정을 본적이 없다. 이들이 나라를 구할것이다"라고 할 정도였다. 대령이 있을때부터 둘의 휘하에서 싸웠고 클레베르와 절친했던 베르나도트 역시 마르소와 친했다. 베르나도트와 마르소는 법률가의 아들로, 10대에 군에 자원입대해서 사병에서 장군이된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둘은 처음부터 친밀감을 느꼈을것이다.



기병대 복장의 마르소

27살에 사망한 그는 이미 프랑스 전역에 이름을 알린 장군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다시 라인강을 건넜고, 장군들은 총사령관인 주르당에 대해 회의적이 되었다. 특히 클레베르와 베르나도트가 주르당이 총사령관 직에 머무는것에 대해 크게 반대했는데, 베르나도트는 주르당에게 "분대 하나도 지휘하지 못하는 총사령관"이라는 소리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공적인 일로 둘의 사이는 변함없었다고 한다. 특히 주르당은 이후 쓴 자신의 회고록에서 베르나도트의 행동에 대해 늘 칭찬하는 말로 일관했다.=.....대인배 주르당] 주르당은 결국 사직을 원했다. 정부는 부사령관이었던 클레베르가 총사령관이 되길 원했지만, 클레베르는 총사령관이 될마음이 없었다. 결국 삼브레와 뫼즈군의 총사령관은 베르농빌이 되었다.

베르나도트는 1796년 겨울 숙영을 코블렌츠에서 했다. 그는 이때 파리의한 신문에 자신에 대한 비방기사가 났고 이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것에 분개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졌으며 아무도 신경쓰지않는데 화가나서 장군직을 사임하려했다. 하지만 클레베르는 베르나도트를 잘 달랬고, 베르나도트는 마음을 바꿨다.

이 기간동안 베르나도트의 명성은 정점에 이르렀다. 특히 1794년은 베르나도트에게 "기적의 해"였다. 1월에 지휘관급인 대위가 되었고, 2월에는 중령이 되었으며 4월에는 대령이 되었다. 그리고 6월에는 여단장(소장)이 되었으며, 8월에는 사단장(중장)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 두해에는 언제나 무공으로 이름이 언급되었다.

베르나도트는 진격할때는 늘 선봉에서 병사들 앞에 섰으며, 퇴각할때는 늘 후미에서 적과 교전하면서 퇴각할 시간을 벌어드 주었다.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때면 베르나도트는 더욱더 대범하게 나갔고 이런 "센척"하는 기술은 자주 적들을 당황시키면서 시간을 벌게 해줬다. 베르나도

트가 이런 "센척"하는 기술을 사용할수 있었던것은 장군을 믿고 따르던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런 신임을 얻을수 있었던것은 병사들과 함께 행동했기 때문이었다. 포탄이 빗발치던 한 전투에서 베르나도트는 참호를 파는 병사들을 매일 돌러보았다. 병사들은 너무나 위험하니 장군은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베르나도트는 병사들과 함께 위험한곳에 있는것이 도리어 기쁘다는 대답을 했다고한다. 이에 대해 병사들은 "용감한 장군을 우리가 보호해야하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할것이다"라는 대답을 했다고한다.

하지만 베르나도트가 병사들을 다정하게만 대한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정하지만, 군율에는 한없이 엄격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도시를 공격하기 직전 병사들에게 보내는 훈령에서 "모든것보다 우선적으로, 포위 공격동안 엄격한 규율이 잘 지켜져야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경고하건데, 일말의 불평이라도 곧 공화국에 대항하는 범죄로 간주될것이다." 라고 할 정도였다.

베르나도트는 점령한 주민들에대해서 매우 너그럽게 대했는데, 그는 "자유를 알리기 위해 전쟁을 하는것이지, 주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한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헤센의 란트그라프는 자신의 주민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준 베르나도트에게 감사의 의미로 자신의 말을 보내주기도 했다. [물론 베르나도트는 이 말값을 보냈다. 하지만 이말을 받은것은 베르나도트에게 좋은 일이었는데, 후에 베르나도트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때 이말때문에 살아남았다...-헤센대공이 진짜 좋은말을 했군요.]

그는 약간 고지식한 면과 소심한 면도 있었는데, 특히나 자신의 명예가 달린 문제에 대해서 민감했다. 베르나도트의 참모장은 주민들이 보낸 선물을 베르나도트가 거절하자, 자신이 대신 받는다. 그는 이런 선물을 받지 않는것은 주민들의 호의를 무시하는 처사라 여겼다. 하지만 이것을 안 베르나도트는 그를 바로체포했다. [물론 별일 아니라서 풀려나긴했지만, 열받은 참모장은 사직하고 베르나도트에게 결투를 신청할정도였다.-뭐 베르나도트가 미안했다..용서해라..라고 말해서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그리고 엄격한 군율을 자랑하는 자신의 부대가 도시를 "약탈했다"라는 악의적인 기사가 파리에서 나오자, 그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사해달라고 했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자 사직하겠다는 이야기까지했다.

베르나도트 장군

이때 경력이 정점에 이르렀지만, 베르나도트의 꿈은 소박했다. 그는 자신의 장교들에게 은퇴해서 장군 월급의 반인 연금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했다. 이때 베르나도트는 용감한 군인이었지만, 민감한 정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으며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곧 자신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그시대 가장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

1797년 베르나도트는 후에 황제 나폴레옹이 되는 보나파르트 장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간다.

베르나도트 : 프랑스에서의 삶(1)

엘의 주절주절 <http://blog.daum.net/elara1020> 블로그

엘 저자

2011.01.28 18:16:41 발행일

 블로그